



## 다문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2020년 1월 설날, 아직 선명히 기억한다. 뉴스에선 중국의 한 지역에서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명절이 지나자 예정되어 있던 강의를 줄줄이 취소되었다. 처음 겪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고, 2021년 10월 현재, 우리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글. 최희선(사람과다문화교육연구소 '나다움' 대표)

###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 현상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던 10여년 전,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 "요즘 다문화가 너무 많아. 그래서 문제인 거 같아."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는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한국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고, 그 법에선 '다문화 가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함이지, 누군가를 그렇게 부르기 위함이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을 하러 학교에 가면 많은 교사들이 나에게 '강사님 A, B가 다 문화예요'라고 말하곤 한다. '다문화'라는 말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 아니다. 비슷하게 '장애인 복지법'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우리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부를 때 '장애인 00'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을 '다문화'라고 쉽게 부르거나, 심지어는 특정 국가의 명칭으로 그 사람을 부르기도 한다.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들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증가하는 것이 단순히 외국인이 많아졌기 때문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들조차도 피부색이 비슷하다 해서, 혹은 같은 직업을 가졌거나, 같은 성별이라고 해서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더이상 '여성, 남성은 이래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한국 사람은 다 그래'라고 일반화할 수도 없다. 우리 사회는 어떤 집단으로 공통점을 가질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한 사람을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그 자체로 다문화 사회인 것이다. 즉, 내가 가진 다양성이 포함된 사회가 다문화 사회인 것이지, 외국인이 많아진 사회가 다문화 사회는 아닌 것이다.

###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와 다문화 사회

우리는 정말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필자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부적 영향으로 사회·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보니 '안정된 직업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래서 사람들이 정규직, 정규직 노래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직업의 종류나 지위, 가구의 형태, 장애, 성 정체성, 종교, 출신 지역 등의 구분이 점점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데, 우리 사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서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가? 그 다양함 안에서 소수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다른 누군가 보다는 조금 더 불편하고 더 어렵진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해봐야 할 것이다. 많은 나라처럼 한국에도 이주의 배경을 가진 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일지라도 외모나

언어가 다른 경우 포함) 차별에 노출되곤 한다. 전염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제적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거나, 일자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꿈꾸며

우리 사회는 이미 이주민들 없이는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비중이 크다.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주의 배경을 둔 다문화 가족도 점점 늘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주민이 아닌 한국 사람만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우리가 그들까지 챙겨야 하느냐고 생각하진 않은지 살펴볼기를 제안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는 '우리'와 '그들'로 이분화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함께 해나가는 사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양한 개성과 배경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함께 감염병 사태를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도약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